

# 문학지리학 관점으로 본 이용악 시의 지식인의 소명의식에 따른 고향·서울의 장소성 연구\*

송지선(전북대)

## < 목 차 >

1. 머리말
2. 일제 말 지식인의 자의식과 고향의 이질적 관계
3. 해방기 지식인의 소명과 서울의 동질적 관계
4.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이용악 시에 나타난 해방기 지식인과 ‘서울거리’의 관계를 문학지리학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고향과 ‘서울거리’에서 지식인적 정체성이 각각 어떤 양상으로 표출되는지 밝힌다. 이용악은 자기 문학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민중의 장소를 재현한다. 여기에서 장소는 지식인의 사회적 실천이 일어나는 구체적 위치가 된다. 해방기 시인들의 대부분 작품이 관념적·선동적인 것에 비해, 이용악의 작품이 그들과 차별성을 갖는 것은 민중의 생존과 직결된 현장을 찾아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작품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문학지리학적 접근은 해방기 이용악 문학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유효한 관점을 제공한다. 문학지리학은 인간을 지리적 존재로 보고 작중 인물과 공간의 관계를 통해 인간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이해한다. 한 인간에 대한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7074212)

실존적 이해는 시간의 보편성에 입각한 큰 이야기가 아니라 장소의 특수성에 입각한 작은 이야기에서 시작된다고 할 때, 작품에 대한 문학지리학적 접근은 장소에 따른 인간의 개별적 삶을 이해하는 효과적 방법이 된다.

일제 말 역사의 변방인 고향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해방기의 이용악은 ‘서울거리’로 상징되는 역사의 중심에 서고자 한다. 해방기 지식인과 ‘서울거리’의 관계를 논하는 연구에서 일제 말 고향의 장소 경험을 말하는 이유는 해방 직후 이용악이 ‘서울거리’에 당도하게 된 경위와 고향과 ‘서울거리’의 장소성 차이에 따른 지식인의 자의식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용악이 일제 말 고향에서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으로 갈등하는 모습과 해방기 지식인으로서 시와 삶과 행동의 총체가 ‘서울거리’에 통합되는 모습을 파악하여 장소가 인간의 사회적 삶을 구성하는 중심 요소임을 말한다.

**핵심어** : 이용악, 문학지리학, 렐프, 감정이입적 내부성, 실존적 내부성, 해방기, 서울, 거리, 고향, 장소, 장소성, 지식인.

## 1. 머리말

이용악의 시는 장소의 문학이다. 작품의 의미가 특정 장소와의 연관성 속에서 생산되며, 시인의 정체성이 장소를 통해 규정된다. 본 연구는 이용악 시에 나타난 해방기 지식인과 서울의 관계를 문학지리학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고향과 서울에서 지식인적 정체성이 각각 어떤 양상으로 표출되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용악은 함경북도 경성의 국경마을에서 밀무역을 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유년시절을 보내고 부두 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간 적도 있

지만, 그는 일본 유학을 거친 지식인이다. 이에 따라 이용악의 이동은 함북 경성과 서울, 일본 동경에 걸쳐 반복된다. 작품 세계를 살펴보면 그는 고향에서 서울을 갈망하고, ‘서울거리’에서는 우리 민족의 통합을 실천할 이상적 장소를 찾아 투쟁한다. 지식인의 정체성에 기반한 ‘여기’와 ‘저기’를 잇는 이용악의 지리적 상상력은 현실의 문제적 장소를 찾아가는 추동력이 된다.

여기에서 고향과 서울의 장소경험은 당시 지식인의 내면의식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일제 말과 해방기를 다룬 이용악의 시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해방 직후 그가 서울로 이동한 것은 단지 해방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의 민중 지향성과 지식인적 정체성이 동시에 발현된 행동<sup>1)</sup>이기 때문이다.

이용악의 작품에서 지식인적 자의식은 자주 발견된다.<sup>2)</sup> 여기서 지식인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보다 본질적인 관심을 보이며 또한 시대와 사회의 인식체제와 도덕적 문제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sup>3)</sup>는 사람을 이른다. 또한 “혼란한 시기를 넘어서 사회적·문화적인 변동에 결정적 역할”<sup>4)</sup>을 하기 위해 권력에 맞서 진실을 재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용악은 시인으로서 지식인이 갖는 사회적 책임을 자신이 처한 장소 재현을 통해 드러낸다. 그의 대표작 「북쪽」, 「전라도 가시내」, 「제비같은 소녀야」, 「넓은 집」, 「오랑캐꽃」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천치의 강아」, 「우라

- 
- 1) 이와 관련하여 김종철은 “시인으로서 이용악의 위대한 업적은 그 자신의 개인적인 명분의 진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그의 진정성이 있다.”라고 말한다.(김종철, 「용악-민중시의 내면적 진실」, 『창작과 비평 1998·가을』, 창작과비평사, 1988, 161쪽.)
  - 2) 이용악의 시에서 발견되는 지식인적 자의식은 다음과 같다. “떨어진 서울을 그리는 것은/도포 걸친 어느 조상이 귀양 와서/일삼든 버릇인가”(「두메 산골 3」), “몇 마디의 서양말과 글짓는 재주와/그러한 것은 자랑삼기에 욱되었도다”(「시골사람의 노래」), “어느 동무들이 회망과 초조와 떨리는 손으로 주위 모은 활자들이나 아무렇게나 쌓아놓은 신문지 우에 독한 약봉지와 한 자루 칼이 놓여 있는 거울 속에 너는 있어라”(「오월애의 노래」), “내사 아마 펴도 약한 시인이길래 부끄러이 낮을 돌리고 그저 울음이 복받치는 것일까”(「노한 눈들」)이다.
  - 3) 조남현, 『한국지식인소설연구』, 일지사, 1984, 8-9쪽.
  - 4) 장 보영, 민희식 역, 『지식인이란 무엇인가?』, 탐구당, 1985, 94쪽.

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푸른 한나절], 「거리에서], 「38도에서] 만 보아도 그  
 가 시대와 관련된 문제적 공간에 관심을 갖고 작품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했  
 음을 알 수 있다.<sup>5)</sup> 시인의 시세계에 전반적으로 펼쳐진 장소들을 따라가다  
 보면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 전쟁 직전까지 역사의 흐름이 감지된다. 뿐만 아  
 니라 시대에 대한 그의 문제의식이 일제 강점기 유이민의 비극적 삶에서 해  
 방기 민족의 주체성 회복과 그에 따른 실천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용악의 작품에 나타난 장소는 그의 시세계를 관통하는 핵심축으로, 이에  
 대한 시인의 인식은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는 전제가 된다.

이용악의 전반적인 시세계가 장소로 연결되는 만큼 공간과 관련된 연구는  
 다른 주제에 비해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그 공간 연구는 대부분 일  
 제강점기 유이민의 삶과 관련된 고향과 북방에 집중되어 있고, 해방기 작품  
 의 공간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해방기 이용악의 작품은 문학성이 떨어진  
 다는 이유로 앞의 연구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당시의  
 문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영향권 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이해하고  
 해방기 이용악 작품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sup>6)</sup>

해방기 이용악 시 연구는 각기 다른 논의를 펼치고 있지만, 논의의 출발

---

5) 각 작품이 보여주는 공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북쪽, 「전라도 가시내], 「제비같은  
 소녀야]는 일제강점기에 국경 너머로 '팔려간' 여성 유이민의 문제를 변방의 경계성을  
 통해 말한다. 「오랑캐꽃], 「낡은 집]은 변방민의 억울함과 삶의 척박함을 만주, 연해주와  
 변방과의 인접성을 통해 보여준다.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천지의 강아]는 고향을  
 떠나는 유이민의 심정을 두만강의 장소성을 통해 말한다.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푸른 한나절]은 유이민들의 제2의 고향으로서 연해주에서의 삶을 보여준다. 「거리에서  
 ]는 '서울거리'를 통해 해방기 한국 사회의 모순을, 「38도에서]는 38도에 자행된 해방  
 후 미소군정의 억압 문제를 드러낸다. 주로 변방지역의 공간성 통해 시대의 문제를  
 말한 것은 그의 고향이 함북 경성의 국경마을이었던 것과 관련된다.

6) 곽효환, 「해방기 이용악 시 연구」, 『한국시학연구』 제41호, 2014, 67-98쪽.  
 박옥실, 「이용악 시 주체의 변모양상 연구-해방기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62, 한국문학  
 언어학회, 2014, 437-462쪽.

최명표, 「해방기 이용악의 시세계」, 『한국언어문학』 63권 63호, 2007, 327-346쪽.  
 한아진, 「해방기 이용악의 자기비판과 시적변모」, 『한국현대문학연구』 46, 한국현대문  
 학회, 2015, 189-243쪽.

집을 해방을 기점으로 이용악의 시에 중대한 시적 변화가 생겼고 그 원인을 시대의 정치사회적 변동과 조선문학가동맹의 활동으로 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물론 이용악의 시적 변모는 해방기의 혼란한 시대상, 그에 따른 그의 정치활동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것만이 아닌 시적 주체의 이동에 따른 고향과 서울의 장소성의 차이가 작품의 변모와 관련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즉 해방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용악이 여전히 고향에 머물고 ‘서울거리’의 현장과 합류하지 않았다면 그의 시는 해방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

이용악 시의 서울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이용악 연구의 단초를 마련한 윤영천이다. 그는 이용악의 시에서 서울지향주의가 확연히 드러나며, 이는 민중적 삶의 세부를 포착할 수 있는 지방주의적 관점으로부터의 이탈, 중앙에서 문학적 두각을 열망하는 조급성의 표현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sup>7)</sup> 그러나 본고는 이와 다르게 생각한다. 민중적 삶의 세부는 지방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해방된 서울은 일제 강점기에 고향을 떠난 전제민들이 대거 귀향하면서 민중의 열망이 가장 뜨거운 지역이다. 또한 갑자기 불어난 인구로 민중의 생존 환경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기도 하다.<sup>8)</sup> 따라서 이용악이 해방이 되자마자 상경한 것은 일제 강점기 유이민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된다. 이명찬은 이용악의 시에서 경성(시인의 고향), 만주, 시베리아와 같이 서울이 전면적 의미로 해석되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은 이용악 시의 지향점을 해명하는, 시적 주체와 현실적 주체를 아우르는 유일한 지점이라고 말한다.<sup>9)</sup>

문화지리학은 인간을 지리적 존재로 보고 작중 인물과 공간의 관계를 통해 그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한 인간에 대한 실존적 이해는 시간의 보편성에 입각한 큰 이야기가 아니라 장소의 특수성에 입각한 작은

7) 윤영천, 「민중시의 전진과 좌절」, 『이용악전집』, 창작과비평사, 2000, 246-247쪽.

8) 이러한 내용은 이용악의 「하나씩의 별」, 「하늘만 곱구나」, 「기관구에서」, 「흙」에서 확인된다.

9) 이명찬, 「이향과 귀향의 변증법 : 이용악론」, 『민족문학사연구』 12, 1998, 148~178쪽.

이야기에서 시작된다고 할 때, 작품에 대한 문학지리학적 접근은 장소에 따른 인간의 개별적 삶을 이해하는 효과적 관점이 된다. 또한 문학지리학은 지리학의 인간주의적 전통에 입각하여 장소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간적 환경을 연구하는 데에 지리학의 비재현적 한계를 문학의 지리적 재현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sup>10)</sup>

문학과 지리의 이 같은 친밀성은 문학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는 어떤 장소나 지리를 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화지리학자 마이크 크랭(Mike Crang)은 “지리학과 문학은 둘 다 장소와 공간에 대한 글쓰기”<sup>11)</sup>라고 지리학과 문학의 공통점을 명시한다. 그러나 문학과 지리학의 사이에 작품을 두고 지리학자는 장소에 대한 사실적인 자료를 구하거나 경관을 바라보는 인물의 감정과 관련된 지리적 지식을 획득하여 지리학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한다면, 문학연구자는 지리학자들이 발견한 지식을 넘어 인간과 장소의 실존적 관계에서 발견되는 작품의 독특한 의미 형성에 관심을 갖는다.

본 연구는 렐프(Edward Relph)의 ‘문턱’<sup>12)</sup> 개념을 통해 고향과 ‘서울 거리’의 장소성 차이가 지식인의 내면의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고찰한다. 렐프는 장소의 본질은 외부와 구별되는 내부의 경험 속에 있다고 말한다.<sup>13)</sup> 그런데 외부와 내부는 서로 밀접한 관계여서 둘의 위치는 어느 순간 대립되고 역전된다고 한다. 이런 내부와 외부의 모호한 경계를 그는 ‘문턱’이란 개념으로 제시한다. ‘문턱’은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잠재적 이동 가능성이 풍부한 위치를 말한다.

렐프의 장소 경험 방식은 문학작품에서 지리나 장소에 투영된 작중 인물의 내면 의식을 이해하도록 한다. 인물의 내면 의식에는 그가 지표상에서 삶

---

10) 이은숙, 「문학지리학 서설-지리학과 문학의 만남」, 『문화역사지리』 4, 1992, 147-166쪽, 참조.

11) Crang, M., “Literary landscapes: writing and geography”, Cultural Geography, London: Routledge, 1998, P.44.

12)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116-128쪽, 참조.

13)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116.

을 영위하는 방식, 그가 머무는 장소에 따른 세계를 구조화 방식, 그 곳에서 삶과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을 드러낸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지역, 계급, 성(gender), 민족, 국가 등 다양한 사회망을 통해 자신의 환경을 수용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장소는 인간의 정체성만큼 수많은 스펙트럼으로 경험된다.

작품에서 이용악은 이러한 ‘문턱’에 위치한다. 그는 여기, 내부에 있으면서 저기, 외부를 지향한다. 그리고 지향하던 저기가 마침내 여기(내부)가 되면 또 다른 저기(외부)를 찾아 나아가고자 한다. 여기와 저기를 잇는 지리적 상상력에는 지식인의 사회적 소명의식이 작용한다. 일제 말에서 해방기까지 고향에서 서울을, 서울에서 ‘서울거리’를, ‘서울거리’에서 이데올로기를 실천할 이상적 장소를 지향하는 시인의 모습은 지식인의 삶의 방향성과 동태를 이룬다.

해방기 대부분 시인들의 작품이 관념적·선동적 구호 일색이었던 것에 비해, 이용악의 작품이 그들과 차별성을 갖는 것은 민중의 생존과 직결된 현장(장소)을 찾아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재현했기 때문이다.<sup>14)</sup> 문학지리학적으로 지식인의 서울 지향성을 살펴보는 것은 이용악의 해방기 문학을 조선 문학가동맹의 이념적 거대 서사로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고, 장소성에 따른 시인의 내면의식을 탐색하여 기존 연구와는 다른 시인의 구체적 삶의 개별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

14) 대표적인 예로 「기관구에서」는 “불 꺼진 기관차를 끼고 옹소 옹소 외치며 박수치는 똑같이 기름 배인 손들이어 교대시간이 오면 두 눈 부릅뜨고 일선으로 나아갈 전사 함마며 파업을 탄탄히 견 채 철길을 베고 굳히 잠든 동무들이어”를 보면 공허한 구호의 외침이 아닌, 파업 현장에 직접 뛰어든 화자의 장소 재현으로 시적 리얼리티가 확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승원은 이 작품이 이용악의 시에서 해방기의 민중현실을 다룬 정상적 작품이라고 평가한다.(이승원, 「이용악 시의 현실성과 민중성」, 『20세기 한국시 이론』, 국학자료원 1997, 234쪽.)

## 2. 일제 말 지식인의 자의식과 고향의 이질적 관계

해방 직후 이용악이 서울에 당도하게 된 경위와 장소성의 차이에 따른 지식인의 자의식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일제 말 시인의 고향의 장소 경험을 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이명찬은 이용악과 고향의 긴장관계는 매우 복잡한 구도로 나타나며, 그것이 서울이라는 방향 표지를 통해 드러나는 점이 특이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sup>15)</sup> 이용악이 머물고 있는 고향의 어떤 장소성이 그에게 서울을 갈망하게 했는지 탐색한다.

이용악이 고향에서 갈망한 서울은 현실과 관련된 어떤 구체성을 갖는 장소라기보다는 일제 강점기의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는 미래적 기제로, 지식인의 사회 참여 의식에 부응하는 상징적 장소가 된다. 즉 이용악의 서울 지향성은 고향을 주변으로 보고 서울을 중심으로 보는 공간적 위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태생적 민중의식과 일본 유학을 거친 지식인의 시대적 사명이 작용한 것이다.

이용악의 고향 함북 경성은 당대의 현실 문제가 집약된 서울과 지리적으로 멀 뿐 아니라, 그 곳의 산악지대로 폐쇄적 지역성을 갖는다. 일제 말에 이용악은 『모사건』<sup>16)</sup>에 연루되어 감옥에서 나온 후 해방 전까지 약 2년 간 고향에 칩거한다. 여기서 그는 지식인으로서 일제에 저항하지 않고 서울을 외면한 채 고향에서 몸을 사리고 있는 자신을 비판한다. 식민지의 고통이 집약된 서울을 외면한다는 것은 곧 시대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향의 지리적 폐쇄성은 시인의 행동반경을 극히 제한할 뿐만 아니라, 무력해진 내면세계로 침잠하게 한다.

15) 이명찬, 「이향과 귀향의 변증법 : 이용악론」, 『민족문화사연구』 12, 1998, 150쪽.

16) 이용악은 「『오랑캐꽃』을 내놓으며」라는 글에서 “서울을 떠나기 전에 시집 『오랑캐꽃』을 내놓고저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듬해 봄엔 『모사건』에 얽혀 원고를 모조리 함경북도경찰부에 빼앗기고 말았다”라고 말한다.(이용악, 「『오랑캐꽃』을 내놓으며」, 『오랑캐꽃』, 아문각, 1947, 94쪽.)

참나무 불이 이글이글한  
오지화로에 감자 두어 개 물어놓고  
멀어진 서울을 그리는 것은  
도포 걸친 어느 조상이 귀양 와서  
일삼든 버릇일까  
돌아갈 때에 당나귀 타고 싶던  
여러 영에  
눈은 내리는데 눈은 내리는데

— 「두메산골 3」 전문, 17) 『이용악시전집』, 99쪽

모두 벼슬 없는 이웃이래서  
은쟁반 아닌  
아무렇게나 생긴 그릇이 되려  
머루며 다래까지도 나눠 먹기에 정다운 것인데  
서울 살다 온 사나인 그저 앞이 흐리어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소리와 함께  
모올래 울고 싶은 등잔 밑 차마 흐리어

— 「등잔 밑」 전문, 『이용악시전집』, 116쪽

두 작품의 제목인 ‘두메산골’과 ‘등잔 밑’은 각각 자신의 고향과 방 안의  
용색함, 나아가 지리적 공간의 폐쇄성을 표상한다. 그것은 “여러 영에/눈은  
내리는데 눈은 내리는데”(「두메산골 3」)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소리”, “모  
올래 울고 싶은 등잔 밑”(「등잔 밑」)으로 구체화된다. 어차피 먼 서울인데,  
고향과 서울 사이에 ‘눈이 쌓이고 파도소리는 멀어지면서’ 지리적 거리감이  
심리적 거리감이 되어 현실에서 소외된 지식인의 고독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

17) 작품은 윤영천 편, 『이용악시전집』, 창작과비평사, 2000.에서 인용한다.

또한 두 작품은 “눈은 내리는데 눈은 내리는데”(『두메산골 3』)와 “머루며 다래까지도 나눠 먹기에 정다운 것인데”(『등잔 밑』)처럼 “-(인)데”가 공통적,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고향에 마냥 안주할 수만은 없는 시인의 초조함이 느껴진다. “-(인)데”의 반복적 사용을 공간적으로 이해하면 여기(고향)와 저기(서울)에 걸쳐져 있는 자신의 심리적 양가성에 따른 ‘문턱’의 위치를 드러내는 언어적 표지가 된다.

“참나무 불이 이글이글한/오지화로에 감자 두어 개”(『두메산골 3』)는 소박하지만 안분지족 할 수 있는 고향의 일상을 말한다. 그러나 이용악은 “서울 살다 온 사나이”(『등잔 밑』)라는 자의식에 간혀 “떨어진 서울을 그리”(『두메산골 3』)고 있다. 『등잔 밑』에서 소박한 삶과 어울리는 “아무렇게나 생긴 그릇이” 아닌 “은쟁반“과 같은 고고한 지식인으로 고향의 일상과 동떨어져 있다.

더구나 자신의 처지를 “도포 걸친 어느 조상”의 “귀양”으로 동일시하고 있다. 귀양이란 벼슬을 가진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사람들과 격리된 오지로 보내지는 것을 말한다. 즉 ‘도포 걸친 어느 조상의 귀양’은 지금 자신의 고향 경험이 자발적 선택이 아닌 어떤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것과 그로 인해 현실에 동참할 수 없는 시인의 좌절감을 동시에 표현한다.

우러러 받을 수 없는 하늘  
 검은 하늘이 쏟아져내린다  
 원뿔을 굽이치는  
 병든 흐름도 캄캄히 저물어가는데

에서 아는 이를 만나면 숨어버리지  
 숨어서 휘정휘정 뒷길을 걸을라치면  
 지나간 모든 날이 따라오리라

썩은 나무다리 걸쳐 있는 개울까지  
 개울 건너 또 개울 건너

빠알간 숯불에 비웃이 타는 선술집까지

푸르른 새벽인들 내게 없었을라구  
나를 에워싸고  
외치며 쓰러지는 수없이 많은 나의 얼굴은  
파리한 이마는 입설을 잊어버리고저  
나의 해바래기는  
무거운 머리를 어느 가슴에 떨어트리랴

이제 검은 하늘과 함께  
줄기줄기 차거운 비 쏟아져내릴 것을  
네거리는 싫어 네거리는 싫어  
히 히 몰래 웃으며 뒷길로 가자

— 「뒷길로 가자」 전문, 『이용악시전집』, 105쪽

위 작품에서 이용악은 “네거리”를 부정하고 “뒷길”로 가고자 한다. 여기서 “뒷길”이 시대적·지리적으로 뒤안길이 된 자신의 고향을 말한다면, “차거운 비 쏟아져내리”는 “네거리”는 조국상실의 비극적 시련이 펼쳐지는 한복판, 즉 서울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가 가려는 “뒷길”은 “지나간 모든 날이 따라 오”는 곳, “히 히 몰래 웃으며” 가는 곳이다. 따라서 그가 가는 “뒷길”(고향)은 자조적 성찰로 얼룩진 지식인의 병든 내면을 드러내는 은둔의 장소가 된다.

“예서”는 여기서의 준말로 시인이 서 있는 “뒷길”(고향)을 말한다. “예서” 이용악을 내내 괴롭히는 것은 “아는 이”와 “지나간 모든 날”이다. “아는 이”와 “지나간 모든 날”은 “네거리”(서울)와 관련된 인물과 사건으로 “네거리”를 부정하듯 그것들을 부정하고 싶지만 계속해서 “따라”와 시인은 자괴감에 시달린다. 극에 다른 일제의 탄압에 “네거리”(서울)로 가 저항해야 하는 지식인의 책임을 저버린 이용악의 죄의식을 보여준다. 따라서 “네거리는 싫어

네거리는 싫어”는 시인의 패배주의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네거리”(서울)로 지향되는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려는 강한 부정이기도 하다.

“푸르른 새벽인들 내게 없었을라구”는 비록 자신이 지금은 “뒷길”(고향)에서 시대의 현실을 회피하고 있지만, 그에게도 일제에 서슬퍼런 저항을 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지식인의 자기위안적 말이다. 그리고 그 시절의 내 모습은 “파리한 이마”와 “입설”로 “나를 에워싸고/외치며 쓰러”진다. 이는 고향에서 시시각각 떠오르는 지난날 자신의 자화상으로 은둔한 지식인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보여준다.

이용악은 고향의 하늘을 “우리러 받들 수 없는 하늘/검은 하늘”로 표현한다. 이와 같이 이용악이 고향을 암흑의 장소성으로 재현한 데는 고향과의 괴리감 때문이다. 시인의 몸은 고향 내부에 있으나 마음은 고향 외부로 향하고, 내부와 외부의 완전한 불일치에서 함부로 경계를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불안한 ‘문턱’ 위치가 표현된 고향의 장소성이다.

어찌자고 자꾸만 그리워지는  
당신네들을 깨끗이 잊어버리고자  
북에서도 북쪽  
그렇습니다 머나먼 곳으로 와버린 것인데  
산굽이 돌아 돌아 막차 갈 때마다  
먼지와 함께 들이기엔  
너무나 너무나 차거운 유리잔

— 「막차 갈 때마다」 전문, 『이용악시전집』, 115쪽

고향은 우리와 타자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분명한 내부지향적이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장소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으로 이동보다 정착이 지배적인 조건일 때 가능한 고향의 장소성이다. 「막차 갈 때마다」에서 “막차” 즉 기차<sup>18)</sup>의 등장으로 이동이 수월해지면서 고향의 이러한 장소성에 균열이

18) ‘기차’는 이용악의 여러 작품에서 나타나며 그의 시세계에서 공간의 어떤 흐름을 감지하

오기 시작한다. 장소의 여기와 저기를 나누는 경계선에 구멍이 생기고 한 인간에게 두 개의 장소가 투과된다.

이용악의 고향 시편에서 나타난 시인의 ‘문턱’ 위치는 이러한 구조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 작품에서 “막차”는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시인의 마음을 뒤흔드는 대상이자 서울에 대한 그리움을 부추기는 고향의 외부적 기제이다. “어찌자고 자꾸만 그리워지는 당신네들”은 서울을 떠올리게 하는 총체적인 대상들로, 서울과는 아주 “머나먼” “북쪽(고향)”에 와서도 계속되는 지식인의 시대적 고민을 보여준다.

“막차 갈 때마다” 발생하는 지역과 지역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교차 상황은 지리적 이동성과 지속적 장소성의 상충관계를 만들어 고향에 대한 이용악의 이율배반적 심정을 형성한다. 이와 관련하여 크레스웰(Cresswell)은 “한 장소 안에도 다수의 정체성이 존재하며, 그것은 내부에 의해 정의되기도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 정의된다.”<sup>19)</sup>라고 말한다. 주체의 장소감은 그것의 내재적 특성이 아니라 외부적 특성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고향을 “북에서도 북쪽”으로 표현한 것은 자신의 현재 지리적 위치가 현실에서 퇴보된 위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먼지”는 막차가 가고 난 뒤에 일어나는 부유 물질로 고향에서 겪는 시인의 부유하는 심리를 자극하는 기제가 된다. 거기에 “차가운 유리 잔”은 서울로부터의 소외된 지식인의 고독감을 심화시킨다.

고향 시편에서 나타나는 지식인으로서의 성찰은 ‘나는 누구인가?’에서 ‘나는 왜 여기에 있나?’로 이어진다. 이용악 시세계의 현실 인식 지평이 이 시기에 와서 급격히 축소되고 시인의 정신적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고향의 지리적 폐쇄성 때문이다. 이용악은 자신의 근원적 장소로 고향의 본질을 이해하나 고향의 완전한 구성원이 아니라는 의식이 이 시기 고향 시편의 기저에

---

게 하는 매개체이다. 기차가 나오는 작품은 「천치의 강아.」, 「그래도 남으로만 달린다.」,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막차 갈 때마다.」, 「시골사람의 노래.」, 「하나씩의 별.」, 「그리움」 등이다.

19) 크로스웰, 심승희 역, 『장소』, 시그마프레스, 2012, 115쪽.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고향은 서울을 열망하게 하는 ‘문턱’이 되며 시인의 소속감과는 거리가 먼 이질적 장소가 된다.

### 3. 해방기 지식인의 소명과 서울의 동질적 관계

공간은 사회·문화·경제·정치 조건에 따른 의미와 상징을 획득함으로써 특정한 모습으로 구성되고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해방기 서울은 식민지 시절 억눌렸던 민족의 에너지를 분출하며 좌우 대립의 첨예한 갈등을 드러낸다. 서울의 장소성 해석은 장소 그 자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행위와 사건이 아닌 그 너머의 사회적 과정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초점이 모아질 필요가 있다.

해방기의 이용악은 조선문학가동맹의 노선을 따르며 현실에 대한 그의 지식인적 열망을 실천한다. 이용악의 작품에서 ‘서울거리’는 해방이라는 새로운 역사공간의 중심으로 등장한다. 이용악은 「전국문학자대회인상기」에서 해방기의 문학은 “민족 전원의 이익을 존중한 무기”<sup>20)</sup>가 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따라서 ‘서울거리’는 혁명적 무기로 기능하는 시를 쓰기 위해 시인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장소로 볼 수 있다. 이때 ‘서울거리’는 당시 지식인들의 정체성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광장으로서 사회적 장소로 기능한다.

일제 말 역사의 변방인 고향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해방기의 이용악은 역사의 중심인 ‘서울거리’로 향하는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 그가 고향을 떠날 때 타고 간 기차 안, 그리고 서울에 도착하여 경험한 하층민의 삶 터, 탈식민을 꿈꾸는 ‘서울거리’는 현실 권력의 문제가 되는 장소로서 해방기 이용악의 문학 세계를 구축하는 담론의 힘으로 작용한다. 서울의 ‘문턱’에서 ‘서울거리’로 향한 시인은 그 곳의 일부가 되어 민족화합을 위한 ‘서울거리’의 투쟁성, 현장성에 동참하게 된다.

20) 윤영천 편, 「전국문학자대회 인상기」, 『이용악 시전집』, 창작과비평사, 2000, 184쪽.

아버지도 어머니도  
젊어서 한창때  
우라지오로 다니는 밀수꾼

눈보라에 숨어 국경을 넘나들 때  
어머니의 등굣에 파묻힌 나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젓먹이와 다름없이  
얼마나 성가스런 짐찍이었을까

오늘도 행길을 동무들의 행렬이 지나는데  
뒤이어 뒤를 이어 물결치는  
어깨와 어깨에 빛 빛 찬란한데

여러 해 만에 서울로 떠나가는 이 아들이  
길에서 요기할 호박떡을 빚으며  
어머니는 얼어붙은 우라지오의 바다를  
채쭉쳐 달리는 이즈보즈의 마차며 트로이카며  
좋은 하늘 못 보고  
타향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야길 하시고

피로 물든 우리의 거리가  
폐허에서 새로이 부르짖는  
우리아 우리아

<1945년>

- 「우리의 거리」 전문, 『이용악시전집』, 121쪽

무엇을 실었느냐 화물열차의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의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힘한 땅에서 힘한 변 치르고  
눈보라 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남도 사람들과  
북어쫄가리 초담배 밀가루떡이랑  
나눠서 요기하며 내사 서울이 그리워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

푸르른 바다와 거리 거리를  
설움 많은 이민열차의 흐린 창으로  
그저 서러이 내다보던 골짜 골짜를  
갈 때와 마찬가지로  
혈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혈벗은 나요  
나라에 기쁜 일 많아  
울지를 못하는 함경도 사내

...<하략>...

<1945년>

— 「하나씩의 별」 일부, 『이용악시전집』, 123쪽

이용악의 작품에 나타나는 시인의 ‘문턱’ 위치는 점점 외향적이고 진보적인 장소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인의 경계적 위치에서 형성된다. 위의 두 작품에서 보이는 작품 말미의 ‘1945년’이라는 표기와 “여러 해 만에 서울로 떠나가는 이 아들”(「우리의 거리」), “내사 서울이 그리워/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하나씩의 별」)는 고향의 ‘문턱’에서 지식인의 책무로 서울을 지향한 이용악이 해방이 되자 급거 상경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우리의 거리」는 변방에서 겪은 이용악의 험난한 가족사를 말하고 「하나씩의 별」은 해방을 맞아 고국으로 돌아오는 전재민의 모습을 표현한다. 이와 함께 두 작품은 고향을 떠나 서울로 이동하는 이용악의 내면 변화 과정도 살펴볼 수 있다. 작품들을 보면 시인의 문제의식이 외부 현실로, 집단의 연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의 빈번한 등장으로 알 수 있다.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 “남도 사람들”과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른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북어조가리 초담배 밀가루떡이랑/나눠서 요리하며” 그들과 하나가 된다.

그들과 다른 점은 서울로 가는 “이민열차”가 전재민들에게는 고향으로 가는 기차이지만, “함경도 사내”인 시인에게는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가는 기차라는 것이다. 이처럼 이용악과 전재민들이 “이민열차”를 탑승한 목적은 다르다. 그렇지만 시인은 그들과 오랜 시간 이동하면서 이 열차는 하나의 장소가 되고 “우리”라는 소속감을 형성한다. 이용악이 “이민열차” 안에서 전재민들의 사연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 같이 ‘드러누워 하나씩의 별’을 “쳐다” 보는 것처럼, 그가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가는 이유는 역사의 중심에서 하층민의 현실을 목도하고 그들과 같은 희망을 꿈꾸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이용악의 지식인적 소명 의식은 서울로 이동하면서 겪은 하층민의 삶을 통해 구체화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그가 서울에 도착하여 본 피폐한 하층민들의 현실을 문학적으로 재현하면서 실천적 힘으로 강화된다.

「우리의 거리」에서 “피로 물든 우리의 거리가/꽤허에서 새로이 부르짖는/우라아 우라이<sup>21)</sup>”는 이용악이 해방의 진정한 만세를 부르고 싶은 곳으로 “우리의 거리”를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의 거리”는 좌우

---

21) 여기서 “우라아”는 러시아어로 ‘만세’라는 뜻이다. 국경마을에서 러시아 등지를 떠돌며 어린 시절을 보낸 이용악과 그의 부모 세대는 러시아말을 할 줄 알았다. 때문에 ‘만세’를 “우라아 우라아”라고 외친 것은 그 쪽 지역에서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념과 상관없이 민족이 한데 어우러져 해방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광장으로서의 거리’이다. 서울에 도착하여 또 하나의 ‘문턱’을 넘은 이용악이 당도한 곳이 ‘서울거리’ 라는 점에서 그가 서울을 지향한 궁극의 목적이 이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집도 많은 집도 많은 남대문턱 움 속에서 두 손 오구려 흑흑 입김 불며 이따금씩 쳐다보는 하늘이사 아파 하늘이기 혼자만 곱구나

거북네는 만주서 왔단다 두터운 얼음장과 거센 바람 속을 세월은 흘러 거북이는 만주서 나고 할배는 만주에 묻히고 세월이 무심찮아 봄을 본다고 쫓겨서 울면서 가던 길 돌아왔단다

띠방을 떠날 때 강을 건널 때 조선으로 돌아가면 빼앗겼던 땅에서 농사지으며 가 가 거 거 배운다더니 조선으로 돌아와도 집도 고향도 없고

거북이는 배추꼬리를 씹으며 달디달구나 배추꼬리를 씹으며 꺼무테테한 아배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배추꼬리를 씹으며 거북이는 무엇을 생각하누

춧눈 이미 내리고 이윽고 새해가 온다는데 집도 많은 집도 많은 남대문턱 움 속에서 이따금씩 쳐다보는 하늘이사 아파 하늘이기 혼자만 곱구나

<1946년 12월 전제동포 구제 ‘시의 밤’ 낭독시>

— 「하늘만 곱구나」 전문, 『이용악시전집』, 126쪽

요전 추위에 얼었나보다 손등이 유달리 부은 선혜란 년도 입은 채로 소원이 발가락 안 나가는 신발이요 소원이 털모자인 창이란 놈도 입은 채로 잠이 들었다

겨울엔 역시 엉덩이가 따뜻해야 제일이니 뭐니 하다가도 옥에 갇힌 네게 비

기면 못 견딜게 있느냐고 하면서 너에게 차입할 것을 늦도록 손질하던 아내도  
인젠 잠이 들었다

머리맡에 접어놓은 군대 담요와 되도록 크게 말은 솜버선이며 고리짝을 뒤  
저거렸자 쓸만한 건 통 없었구나 무척 험게 입은 속내복을 나는 다시 한 번  
어루만지자 오래간만에 들린 우리집 문마다 몹시도 조심스러운데

이윽고 통행금지시간이 지나면 창외 어머니는 이 내복 꾸레미를 안고 나서야  
한다 바람을 뚫고 바람을 뚫고 조국을 대신하여 내가 있는 서대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

<1947년 12월>

- 「유정에게」 전문, 『이용악시전집』, 133쪽

「하늘만 곱구나」의 “남대문턱 움 속”과 「유정에게」의 “우리집”은 각각 거  
북네 와 이용악의 가정집을 말한다. 여기서 거북네와 이용악의 가정은 시인  
의 체험적 관찰을 통해 해방된 조국의 현실을 내다보는 거점이 된다. 「하늘  
만 곱구나」에서 “두 손 오구려 흑흑 입김” 부는 “거북이”와 「유정에게」에서  
“요전 추위에 얼었나보다 손등이 유달리 부은 선혜”, “소원이 발가락 안 나  
가는 신발이요 소원이 털모자인 창이”는 가난한 서울의 겨울나기를 아이들  
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그 혹독한 시련이 배가된다.

“집도 많은 집도 많은 남대문턱 움 속에서 이따금씩 쳐다보는 하늘이사  
아마 하늘이기 혼자만 곱구나(「하늘만 곱구나」)는 수많은 전제민들로 과부  
하가 걸린 해방기 서울의 희망 없는 현실을 표현한다. 서울은 정치, 경제, 사  
회의 중심지로 해방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열망이 요동  
치는 도시이다. 그러나 ”빼앗겼던 땅에서 농사지으며 가 가 거 거 배운다더  
니 조선으로 돌아와도 집도 고향도 없고“ ”남대문”에서 바라본 “하늘”은 “혼  
자만 곱”다. 이는 희망을 잃은 전제민들의 허탈한 심경을 나타낸다.

해방기의 “남대문”은 가장 변화한 거리이자 전재민들의 집단거주지이다. “남대문”은 전재민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보편적 장소이면서 당시 현실 권력의 문제가 개입되는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을 보여주는 사회적 장소이기도 하다. 이용악은 “남대문턱 움”을 통해 당시 권력층들이 그들의 야심을 채우느라 하층민의 현실을 차일피일 미루는 현실을 비판하고 역사의 주체에 대한 시인의 인식을 보여준다. 특히 「하늘만 곱구나」에서 “만주에 묻”힌 거북이 할배, “거무테테한” 거북이 아베, “배추꼬리를 씹”는 거북이 “삼대의 모습은 역사의 축도<sup>22)</sup>”로, 해방이 되어 시대가 바뀌어도 하층민의 비참한 현실은 계속된다는 이용악의 투철한 계급의식을 드러낸다. 당시 최하층인 전재민의 가정집을 통해 시인과 하층민의 탄탄한 연대와 지식인의 시대적 문제의식이 표출되고 있다.

「유정에게」에서 “창의 어머니는” “옥에 갇힌 네게”, “차입할 것을”, “안고”, “서대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를 보아 “유정<sup>23)</sup>”은 지금 서대문형무소에 갇혀 있다. 서대문형무소는 이 작품을 쓴 이후 1949년 8월에 이용악이 십 년 징역 언도를 받고 수감된 곳이기도 하다. 이용악의 태생적 가난한 “계급으로부터 오는 현실감각”<sup>24)</sup>과 지식인적 삶이 토대가 되어 “남대문턱 움”(「하늘만 곱구나」)과 “서대문 밖”(「유정에게」)이라는 장소가 그의 작품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전략>...

더러는 어디루 갔나 다시 황막한 별판을 안고 숨어서 쳐다보는 푸르른 하늘  
이며 밤마다 별마다에 가슴 맥히어 차라리 울지도 못할 옳은 사람들 정녕 어  
 디서 움트는 조국을 그리는 것일까

폭풍이어 일어서는 것 폭풍이어 폭풍이어 불길처럼 일어서는 것

22) 윤영천, 「민족시의 전진과 좌절」, 『이용악 시전집』, 창작과비평사, 2000, 248쪽.

23) 여기서 ‘유정’은 이용악의 동향 후배이다.

24) 김태준, 『이용악 시 연구』, 문학세계사, 1991, 45쪽.

구보랑 회남이랑 흥구랑 영식이랑 우리 그대들과 함께 정들인 낡은 걸상이  
며 책상을 둘러메고 지나간 데모에 휘날리던 깃발까지도 소중히 감아 들고 지  
금 저무는 서울 거리에 갈 곳 없이 나서려다

내사 아마 꺾도 약한 시인이길래 부끄러이 낮을 돌리고 그저 울음이 복받치  
는 것일까

불빛 노을 함빡 갈았은 눈이라 노한 노한 눈들이라 <1946년>

- 「노한 눈들」 일부, 『이용악시집』, 120쪽

누가 목메어 우느냐 너도 너도 너도 피 터진 발꿈치 피 터진 발꿈치로 다시  
한 번 힘 모두어 땅을 치자 그러나 서울이어 거리마다 골목마다 이마에 팔을  
얹는 어진 사람들

눈보라여 비바람이여 성낸 물결이어 이제 휩쓸어오는가 불이어 불길이어  
노한 청춘과 함께 이제 어깨를 일으키는가

우리 조그마한 고향 하나와 우리 조그마한 인민의 나라와 오래인 세월 너무  
나 서러웁던 동무들 차마 그리워 우리 다만 앞을 향하여 뉘우침 아예 없으라

- 「거리에서」 전문, 『이용악시집』, 131쪽

앞에서 이용악이 서울로 이동하면서 겪은 주변 환경으로 인해, 그의 지식  
인적 소명의식이 구체화된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에 당도하여 본 하층민의  
참상은 그를 더욱 외부세계로 지향하게 하여 마침내 이용악은 ‘서울거리’에  
이른다. 여기서 ‘서울거리’는 또 하나의 식민 현실이 된 미군정에서 탈식민을  
촉구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투쟁의 현장이 된다.

「노한 눈들」과 「거리에서」 나타난 ‘서울거리’는 투쟁하는 “우리”의 의지와  
신념을 확인하는 장소가 된다. 해방기 ‘서울 거리’는 지식인과 민중의 정치.  
사회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공동체적 교감이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곳

이다. ‘서울거리’는 집단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되어 나약한 개인이 아닌 집단의 힘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표출하고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장(場)이 된다. 여기에서 이용악은 ‘서울거리’를 관통하는 좌우 이데올로기의 충돌을 자신 안에 통합하며 실천적 행동의 전위에 나선다. 이는 그가 장소의 일부가 되고 장소 역시 그의 일부가 되는 기제가 된다.

“데모에 휘날리던 깃발까지도 소중히 감아 들고 지금 저무는 서울 거리에 갈 곳 없이 나서련다”(「노한 눈들」)와 “우리 조그마한 고향 하나와 우리 조그마한 인민의 나라와 오래인 세월 너무나 서러웁던 동무들 차마 그리워 우리 다만 앞을 향하여 뉘우침 아예 없어라”(「거리에서」)는 투쟁의 주체가 되어 현실의 불합리함을 뚫고 민족통합의 이상적 사회를 이룩하려는 이용악의 의지를 드러낸다. 그러나 민족화합의 꿈이 좌절되면서 ‘서울거리’의 ‘문턱’에 서게 된 시인은 “웃트는 조국”이 “정녕 어디”에 있는지(「노한 눈들」), 민족화합의 이상적 장소를 찾아 또 한 번 “앞을 향하여”(「거리에서」) 나아가려 한다.

이용악은 해방기 민족화합의 열기와 민중의 모습을 명확히 재현하기 위해 ‘서울거리’ 한복판에 섰다. 투쟁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쓴 이용악의 작품은 인물, 사물, 사건, 의미가 실재하므로 그의 시는 당시 정치적 시편들이 갖는 이념주의로 함몰되지 않고 해방기의 현실과 투쟁을 생생하게 재현해 낼 수 있었다.

일제 말의 이용악이 지리적으로 폐쇄된 고향에서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으로 장소와 이질적 관계를 형성했다면, 해방기의 이용악은 사회적으로 개방된 ‘서울거리’에서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장소와 동질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위의 두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 맺음말

이용악의 시세계에 나타난 공간의식은 일제강점기에는 북방지향성으로,

일제 말과 해방기에는 서울지향성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북방은 시인의 고향 마을 주변의 러시아 국경 지역을 아우른다. 서울은 해방을 맞아 삶의 터전을 찾으려는 전재민의 목적지이자, 새 나라 건설의 중심지가 된다.

공간적 위계와 스케일의 차원이 다른 북방과 서울이 이용악의 시에 함께 등장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일제강점기의 북방을 떠도는 유이민, 해방기의 전재민을 포함한 민중은 각각 시대성을 달리해도 그 시대의 최하층 계급이다. 즉 이용악의 서울지향성은 최하층 계급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재현하려는 지식인의 소명이 작용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용악 시의 고향과 서울, '서울거리'에 재현된 사회 공간적 담론을 추출하여, 당시 지식인이 겪는 내면의식과 장소 경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하였다. 시대적으로 조건화되고 지식인의 장소감이 반영된 이용악 시의 장소 경험을 문학지리학적으로 접근하여 그 사회적 의미망을 포착한 것이다. 장소를 중심으로 해방기 지식인의 정체성과 작품을 이해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작품에 다양한 방식으로 표상되는 장소의 의미를 문학지리학적 관점에서 살피는 연구의 위상이 재고되길 기대한다.

일제 말 고향 시편에서 보인 시인의 감상적 목소리와 운문서정시의 양식은 해방 후 '서울거리'를 재현하면서 선동적 목소리와 산문서사시로 변모한다. 이러한 변화는 이용악이 재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개인의 내면세계에서 공동체의 투쟁 현장으로 옮겨지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고향과 '서울거리'의 장소성의 차이에 따른 이러한 시의 재현 방식의 차이를 미처 밝히지 못하였다. 시인의 장소 경험 방식과 작품의 재현 방식의 관련성은 차후 연구로 가져간다.

## 참 고 문 헌

### 1. 기본도서

- 곽효환 편, 『이용악 전집』, 소명출판, 2015.  
윤영천 편, 『이용악 시전집』, 창작과비평사, 2000.

### 2. 단행본

- 김태준, 『이용악 시 연구』, 문학세계사, 1991,  
김재홍, 『그들의 문학과 생애, 이용악』, 한길사, 2008.  
데이비드 앳킨스, 이영민 역, 『현대 문화지리학』, 논형, 2011.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근대 한국의 문학지리학』, 동국대학교출판부, 2011.  
오현주 편, 『해방기의 시문학』, 열사람, 1998.  
유종호, 『다시 읽는 한국 시인』. 문학동네, 2002.  
에드워드 켈프,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이경희, 『북방의 시인 이용악』, 국학자료원, 2007.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장 보댕, 민희식 역, 『지식인이란 무엇인가?』, 탐구당, 1985.  
장석주, 『장소의 탄생』, 작가정신, 2006.  
조남현, 『한국지식인소설연구』, 일지사, 1984,  
크로스웰, 심승희 역, 『장소』, 시그마프레스, 2012, 115쪽.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현대 문화지리의 이해』, 2013.  
Crang, M, “Literary landscapes: writing and geography”, Cultural Geography,  
London: Routledge, 1998,

### 3. 논문

- 강연호, 「이용악 시의 공간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3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4, 81-107쪽.

- 곽효환, 「해방기 이용악 시 연구」, 『한국시학연구』 제41호, 2014, 67-98쪽.
- 권혁래, 「문학지리학 연구의 정체성과 연구방법론 고찰」, 『우리문학연구』 51, 2016, 167-197쪽.
- 김종철, 「용악-민중시의 내면적 진실」, 『창작과비평』16, 1988, 148-161쪽.
- 박수정, 「이용악 시의 공간 상징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논문, 2004.
- 박승규, 「정체성,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노두」, 『대한지리학회지』, 대한지리학회, 2013, 453-465쪽.
- 박옥실, 「이용악 시 주체의 변모양상 연구-해방기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62, 한국문학언어학회, 2014, 437-462쪽.
- 박용찬, 「해방지후 이용악 시의 전개과정 연구」, 『국어교육연구』 22권, 1990, 1~24쪽.
- 박용찬, 「이용악 시의 공간적 특성 연구」, 『어문학』 제89집, 2005, 258-287쪽.
- 서지영, 『한국 현대시의 산문성 연구 : 오장환·임화·백석·이용악·이상 시를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1999.
- 심재희, 「이용악 시와 공간상상력」, 『현대문학이론연구』 제53집, 2013, 223-247쪽.
- 이경수, 「이용악 시에 나타난 ‘길’의 표상과 ‘고향-조선’이라는 심상지리」, 『우리문학연구』 27, 우리문학회, 2009, 239-268쪽.
- 이길연, 「이용악 시의 공동체 의식 상실과 공간 심상」, 『우리어문연구』 제26집, 2006, 173-195쪽.
- 이명찬, 「이향과 귀향의 변증법 : 이용악 론」, 『민족문학사연구』 12, 1998, 148~178쪽.
- 이영미, 「해방기 문학과 지성인으로서 문학인」, 『현대소설연구』 22, 국현대소설학회, 2004, 1-14쪽.
- 이은숙, 「문학지리학 서설」, 『문화역사지리』 제4집,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1992, 147-166쪽.
- 이은숙·장은미, 「한국 문학공간의 특성과 Web GIS 구축자료에 관한 기초 연구」, 『문화역사지리』13, 2001, 17-33쪽.
- 임주연, 「이용악 시의 공간 이미지에 대한 고찰」,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논문, 2013.

전병준, 「이용악 시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4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8, 27-48쪽.

조남주, 「이용악 시의 공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6.

조동일, 「문학지리학을 위한 출발선상의 토론」, 『한국문학연구』 27, 2004, 157-182쪽.

최명표, 「해방기 이용악의 시세계」, 『한국언어문학』 63권 63호, 2007, 327-346쪽.

최병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소성의 상실과 복원」, 『도시 연구』 8, 2002, 253-278쪽.

한아진, 「해방기 이용악의 자기비판과 시적변모」, 『한국현대문학연구』 46, 한국현대문학회, 2015, 189-243쪽.

【Abstracts】

A Study on Intellectuals of the Liberation Period  
and ‘Seoul Streets’ in the Poetry of Lee Yong-ak  
from a Literary Geographic Perspective

Song, Jiseon

This study approach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llectuals of the liberation period and ‘Seoul streets’ in the poetry of Lee Yong-ak from a literary geographic perspective and attempts to reveal the aspects in which intellectualistic identity is respectively expressed in hometowns and ‘Seoul streets’. Lee Yong-ak reproduces places of the people in a process in which he searches for directionality for his own literature. Here, places become detailed locations in which the social practices of intellectuals occur. While the pieces of most poets of the liberation period were ideological and inflammatory, the pieces of Lee Yong-ak differ from theirs because he found sites directly connected to the survival of the people and made their vivid voices into literary works.

With this, literary geographic approaches provide valid perspectives in figuring out the nature of the literature of Lee Yong-ak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Literary geography views humans as geographic beings and explains and understands the identity of man through relationships between characters and spaces within pieces. Existential understanding of one human does not begin with a great story based on the universality of time but rather from small stories based on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places and literary geographic approaches towards literary pieces can become effective methods for understanding the individual lives of

humans according to different places.

Unlike at the end of Japanese imperialism, when he remained in his hometown at the frontier of history, the Lee Yong-ak of the liberation period tried to stand at the center of history, symbolized by the 'streets of Seoul.' In studies that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liberation period intellectuals and 'Seoul streets', hometown place experiences at the end of Japanese imperialism were provided to understand how Lee Yong-ak arrived on 'Seoul streets' directly after liberation and to understand sense of identity changes in intellectuals according to placeness differences between the hometown and 'Seoul street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how Lee Yong-ak was conflicted with social responsibility as an intellectual in his hometown at the end of Japanese imperialism and how his poetry, life, and actions were integrated with 'Seoul streets' as an intellectual of the liberation period to express how places are a central element that compose the social lives of man.

**Key words** : Lee Yong-ak, literary geography, Relph, empathetic insideness, existential insideness, the liberation period, seoul, street, hometown, place, placeness, intellectual.

이 논문은 2019년 11월 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11월 18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11월 2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